

혼란과 불안의 시대 오늘을 돌아보는 클래식 선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대표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지휘자 홍석원, 첼리스트 카미유 토마가 광주를 찾는다.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리는 GAC 특별기획공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with 홍석원&카미유 토마'를 통해 글린카 '무슬란과 로드밀라 서곡', 파질 세이 첼로협주곡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5번을 연주한다.

GAC특별기획공연은 국내외 우수한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지역 문화예술 향유권을 넓히고, 각 연주단체의 독창적인 색채와 깊이 있는 해석으로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전달하는 무대로 올해 상반기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를 초청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혼란과 불안의 시대속에서 오늘을 돌아보는 서사가 펼쳐진다.

'무슬란과 로드밀라 서곡'은 러시아 클래식 음악의 아버지 미하일 글린카의 오페라다. 빠르고 화려한 전개로 공연의 시작을 경쾌하게 이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터키 출신 현대 작곡가 파질 세이가 2017년 파리와 이스탄불의 테러를 다룬 음악이다. 내면의 트라우마와 인간의 회복력을 표현한 이 곡은 카미유 토마가 세계 최초로 녹음하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첼로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색이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안는 듯한 깊은 울림을 준다. 2021년 통영음악제에서 카미유 토마 협연으로 아시아 초연무대가 있었다. 이날 카미유 토마는 일본음악재단에서 대어한 1730년산 '포이어만'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해 연주 자체가 역사이자 감동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곡은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제5번이



지휘자 홍석원

GAC특별기획 국립심포니 초청 홍석원 지휘·카미유 토마 첼로 협연 11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무대

다. 1944년 작곡됐으며 전쟁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고자 했던 작곡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장대한 구성과 극적인 전개, 힘 있는 리듬이 인상적이며 프로코피예프의 교향곡 중 가장 널리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다.

연주무대에 오르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지난 1985년 민간 오케스트라로 시작해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단체로 자리매김했다. 관현악은 물론이고 발레, 오페라까지 섭렵하며 해마다 100회가 넘는 공연을 소화하고 있다.



첼리스트 카미유 토마

지휘는 지난해까지 광주시향 예술감독으로 활약했던 홍석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다. 홍석원 지휘자는 전통적인 관현악 레퍼토리는 물론 오페라와 발레, 현대음악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휘자로서 '젊은 명장'이라는 찬사와 함께 한국 음악계를 이끌고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재임 시절,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함께한 '베토벤, 윤이상, 바버' 음반 발매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3번 '바비 야르' 한국 초연 등으로 지역 관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프랑스계 벨기에인 첼리스트 카미유 토마는 낙관주의와 생기있는 연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능하며 티켓은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이다. 예매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최진화 기자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9번째 토요일상설공연

7일 서용석류 아쟁산조 무대 등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오는 7일 오후 3시 아홉 번째 토요일 상설공연 무대를 선보인다.

첫 무대는 아쟁연주자 유서정의 '서용석류 아쟁산조' 연주다. 서용석류 아쟁산조는 서용석 명인이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기능 보유자인 정철호 명인에게 진양 12장단, 중모리 18장단, 중중모리 18장단, 자진모리 50장단을 전수한 후 그 위에 본인의 가락을 얹어 완성한 연주다.

유서정은 2024 청춘사야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부나비즈 동인 및 철현금 보존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단한 내공과 섬세한 감성으로 전통 아쟁의미를 전한다.

이어서 소리꾼 조혜진의 무대가 펼쳐진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조혜진은 제22회 명창박목주 전국국악대전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2023년 전주완창무대에서는 흥보가 완창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소리꾼 기태희가 나서 동초 김연수가 창작한 것으로 알려진 '사절가'와 판소리 동초체 심청가 중 '환생'을 선보인다. 교수 박추우가 함께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전통문화관에서는 '토·토·전!' (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을 슬로건으로 절기 관련 체험 및 연회·민속놀이,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펼쳐진다.

전통문화관 모든 프로그램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토요일 전통문화관에서 체험과 공연 등을 모두 즐긴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다회용 타월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최진화 기자



아쟁 연주자 유서정

도서관서 펼쳐지는 사서·장서 이야기

'사사로운 사서' 14~15일 ACC

'도서관'과 '책'의 쓰임과 가치를 통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탐구하는 드라마 연극 '사사로운 사서'가 14~1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 무대에 오른다. 'ACC 아시아콘텐츠 공연개발' 사업으로 제작된 창·제작 공연으로 지난해 남독회 형식의 시범공연 후 전문가와 관객 평가를 거쳐 올해 본 공연으로 제작됐다.

'아시아콘텐츠 공연개발'은 동시대 아시아 현상을 아시아적 사유로 탐구하기 위해 기획된 ACC의 창·제작 사업으로 지난해 푸코의 계보학에서 착안해 올해 주제를 '사물의 계보'로 정했다. 본 공연에 앞서 주제를 심화하고 극장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우리 주변의 사물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해보는 시도를 담았다.

작품의 작·연출을 맡은 강현주 씨는 '2023 DAC 아티스트(두산아트센터 선정)'로 활동하며 전작에서 극작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해 올해 '사사로운 사서'를 통해 본인만의 극작 세계를 구축했다.

작품은 공공도서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연

극으로 도서관 장서들이 침수 사태를 겪으며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의 '회복'과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상황을 맞은 인물이 개인의 오랜 부채를 마주하는 과정의 '회복'을 그린다. 특히 학교 도서관을 무대에 그대로 구현해 관객의 몰입도를 증가시키고, 도서관 내 침수된 책이 복원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인의 가치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환대받고 공존하는 모습으로 공감을 이끌어낸다.

본 공연에는 최근 종영한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출연한 이지현 배우와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국의 생활'의 손지훈 배우가 각각 도서관 자료실의 실장과 수서팀 팀장으로 분해 연기한다. 이외에도 박용우(동아연극상 연기상 수상), 장호인, 황상경 배우가 도서관 사서와 사회복무요원 역을 맡았다.

'사사로운 사서' 공연은 13세 이상 입장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석 2만원이다. 14일은 오후 3시와 7시, 15일은 오후 2시에 공연된다.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특별 할인이 적용된다. 공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셀리아의 특별한 케어!

영롱하게 빛나는 생기있는 피부,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약속

건강한 피부 | 빛나는 삶 | 특별한 케어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문의 : 080-385-0080



CELLIA